



주간 통일정세

2012-5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일 안치 금수산태양궁전 개관…김정은 참배(종합)(12/17,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등)**
 - 북한은 17일 오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를 맞아 그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을 거행했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를 통해 이날 보도함.
 - 매체들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일제히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을 실황 중계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부인 리설주는 이날 당·정·군의 고위 간부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입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고 전함. 특히 검은 상복 차림의 리설주는 배가 많이 부른 모습이어서 출산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임.
 - 김 제1위원장 부부의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희·김기남·최태복 당 비서, 현영철 군 총참모장 등 당·정·군의 고위간부들이 함께함.
 - 개관식이 진행된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는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간부, 군 장병, 근로자, 혁명열사 유가족과 '광명성 3호'의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그리고 주북 외교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임.
- **김정은, 김정일 1주기 추모행사에 우주기술자 초대(12/17, 이타르타스 통신)**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 추모행사에 은하 3호 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특별히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광명성 3호 위성을 실은 은하 3호 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우주기지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17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열린 김 위원장 1주기 추모행사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평양으로 초대됐다고 전함.
- **北, 김정일 시신 일부 외신에 공개(12/18, AP통신)**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인 17일 방부 처리한 김 위원장의 시신을 일부 외신에 공개했다고 AP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이 전날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인민복을 입은 모습의 김 위원장 시신을 공개했다며 "북한은 그(김정일)가 사망한 뒤 그의 유리관이 놓인 홀을 처음으로 AP통신을 포함해 선택된 방문객들에게 개방했다"고 전함.
 - 또 김 위원장의 시신은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시신의 몇 층 아래에서 붉은 천으로 덮여 있으며 김 위원장의 얼굴은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다고 통신이 설명함.
 - 북한은 전날 최근 개보수한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을 하면서 고위 간부와 평양에 주재하는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의 시신을 공개한 것으로 보임. 또한,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사망한 뒤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러시아 전문가들을 동원,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은, 타임지 '올해의 인물' 탈락(12/19, 타임;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강남스타일' 가수 싸이(박재상)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 경쟁에서 막판 탈락했다고 타임지가 19일 보도함.
 - 타임지는 인터넷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김 위원장이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심사위원단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토대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김 위원장은 인터넷 투표에서 563만5천941표를 얻어 미국의 방송인인 존 스튜어트(236만6천324표)를 더블스코어차로 제치고 1위를 했다고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미국잡지 타임이 '2012년의 명인'으로 모셨다"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560만 여명이 투표함으로써 제일 많은 지지표를 받으셨다"고 소개함.
- **北김정은, 로켓 발사 20일 전 발사장 현지지도(12/20,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거리 로켓 발사 20일 전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을 현지지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함.
 - TV가 20일 방영한 새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성과적으로 발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달 22일 로켓 발사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서해 발사장을 방문했다며 당시 현지지도 영상을 공개함.
 - TV는 이어 김 제1위원장이 장거리 로켓 발사 6일 전인 이달 6일 평양 인근에 있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설명하면서, 김 제1위원장은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인 지난 12일에는 발사 예정시각을 1시간 정도 앞둔 오전 9시에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다시 찾아 동창리 발사장에 있는 최춘식에게 화상과 전화로 로켓 발사와 위성의 궤도 진입과 관련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함.
 - TV가 이날 내보낸 영상에는 창공에서 장거리 로켓의 1단과 2단이 분리



되는 장면도 포함됐음. 또한,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는 발사 1분여 만에 1단과 2단이 분리돼 변산반도 서쪽 해상에 떨어졌으며, 우리 해군은 지난 14일 0시26분 '은'자와 '하'자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1단 추진체 잔해를 군산 서방 160km 해상에서 인양함.

- 마지막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로켓 발사 이틀 뒤인 지난 14일에도 동창리 발사장을 찾아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격려했다고 덧붙임.

● **北TV, 김정일 열차·배 전시한 금수산태양궁전 공개(12/20, 조선중앙TV)**

- 북한이 장기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온 금수산태양궁전 내부를 조선중앙TV를 통해 20일 공개함.
- TV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당·군·정 핵심 간부들과 함께 김 위원장 사망 1주기인 지난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 위원장 시신을 참배하는 장면을 이틀 뒤인 19일 방영함.
- 김정은·리설주 부부를 비롯한 참배객은 경계선이 둘러쳐진 김 위원장 시신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방식으로 참배했으며, 일부 간부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함. TV는 그러나 참배객 앞에 놓인 김 위원장 시신은 보여주지 않음.

● **北, 함흥에 김정일 동상 제막...지방에선 처음(12/2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가 21일 보도했음.
- 조선중앙방송은 "함남의 불길이 타오른 역사의 땅에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동상을 모신 것은 천출 위인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며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태양의 위업을 천만년 받들어 갈 함경남도 인민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열화같은 충정의 분출"이라고 전했다.
-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김 위원장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동상 제막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김평해·곽범기 노동당 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로두철·리무영·김용진 내각부총리를 비롯한 중앙의 고위간부들과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등이 참석

● **北,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임명 확인(12/21,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북한은 21일 김격식 인민군 대장이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TV는 이날 함흥시에 새로 만든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석자를 소개하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격식 동지"라고



- 호칭했으며, 북한 매체가 김격식의 인민무력부장 임명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그동안 북한 매체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과 함께 김격식 대장의 모습을 내보내면서도 인민무력부장이라고 호칭하지는 않았음.
 - 2007~2009년 군 총참모장을 지낸 김격식은 지난 2010년 황해도 일대를 관할하는 4군단장으로 재임하며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때 상장으로 강등되기도 했음.
- **北, '광명성 3호' 발사 기여자 101명에 영웅칭호(1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2일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에 기여한 101명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에서 최춘식 외 100명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에게 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됐다"며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2일 발표됐다"고 전했다.
 - 영웅칭호의 수여 배경에 대해 "그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를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필승의 신심을 북돋워주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는 적대세력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렸다"고 소개했음.
- **'광명성3호' 발사 축하연회에 참석한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12/22,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1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광명성 3호'의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를 위해 개최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음.
 - 또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을 축하하는 은하수음악회의 공연 '돌파하라 최첨단'이 이날 평양 인민극장에서 진행됐음.
 - 연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박도춘·김기남·최태복·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 당비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주규창 당부장,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이 참석
- **北, 젊은 세대 띄우기... "우리 주인공은 20~40대"(12/22, 노동신문)**
- 북한이 최근 첫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의 발사 성공을 계기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격려하며 20~40대 젊은층을 부각하고 있다고 22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우주에 닿은 내 조국의 국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체교육의 터전에서 마음껏 배우고 실천 속에서 성장한 우리 주인공들의 나이는 30대, 40대"라며 "이런 쟁쟁한 지식인들이 위성과학기술 분야의 최첨단에서 있다는 것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더없는 자랑이며 긍지"라고 주장했다.
- 북한이 이처럼 젊은 세대를 띄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종 매체의 주장처럼 젊은 과학 인재가 많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북한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는 1998년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 뒤 외국어와 과학 등 실용적 과목을 이전 세대보다 많이 배운 연령층임.

● **北김정은, 생모 공개 않고 조모·부인만 띄우기(12/23,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조모 김정숙의 95주년 생일(12월24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김정숙 찬양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18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탄생 95돌에 즈음해 새 우표가 나왔다"며 "(우표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김정숙 동지의 영상이 모셔져 있으며 그이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이 형상돼 있다"고 전했다.
- 지난 19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는 김정숙 생일을 맞아 직총(직업총동맹) 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열렸으며 20일에는 평안남도 숙천군 문화회관에서 농근맹(농업근로자동맹) 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진행됐음.
- 한편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의 생모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김정은 체제 첫해부터 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를 전격 공개하고 매체에 자주 등장시키는 식으로 부각했음.

● **北, 위성 발사 성공 기념우표·엽서 발행(12/23, 조선신보)**

- 북한 조선우표사에서 위성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우표와 엽서, 달력 등을 제작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3일 전했다.
- 조선우표사는 지난 12일 위성 발사 성공 소식을 듣고 나서 우표와 엽서, 달력을 서둘러 제작했다고 신문이 밝혔다.
- 조선우표사 김해영 처장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기념우표와 신년엽서, 2013년 년력(한 장짜리 달력)들이 평양시는 물론 전국각지에 배포되어 인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됐던 1998년 8월과 2009년 4월에도 기념우표들이 발행됐었다"고 말했다.



■ 김정은동향

- 12/17,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 12.17 '김정은 黨 제1비서와 부인 리설주' 등 참가下 진행(12.17,중통·중방·중앙TV/실황중계)
 - 리설주,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경희, 김격식, 박도춘,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주규창,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최춘식, 광명성-3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들, 駐北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등 참석
- 12/17, 김정은 黨 제1비서, 12.17 리설주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궁전 조성에 기여한 軍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문' 전달(12.17, 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이 마련한 '연고자가족 일행들(해외 연고자가족)을 위한 위로연', 12.18 김기남(黨 비서) 및 중국 항일혁명열사 장물화 가족일행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8,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해외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연회, 12.19 김양건(黨비서)·재일본조선인추모대표단(배익주 총련 부의장) 재중조선인총연합회대표단(최은복 의장)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9,중통)
- 김정일 軍 최고사령관 추대 21돌 및 김정숙 생일 95돌(12.24) 관련 '농군맹 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12.20 평안남도 숙천군문화회관에서 진행(12.20,중통·중방)
-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일꾼들, 12.20 새로 제작·발표된 기록영화(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도 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성과적으로 발사) 관람(12.20,중통)
- 김정일 사망 1돌 추모행사에 참가한 해외동포대표단 성원들, 12.19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김정은제일송배자·옹호자가 되겠다'고 편지(12.20,중통)

나. 경제

● 北 쌀값·환율, 김정일 1주기 직전 급상승(12/22, 데일리NK)

- 반년 넘게 '고공행진'을 거듭하다 지난 10월 소폭 하락했던 북한의 쌀값·환율이 이달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17일)를 앞두고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NK가 보도함.
- 22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집계해 공개하는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0일 평양, 신의주, 혜산 등 북한 3개 주요도시 쌀값은 전 달 대비 kg당 300~700원(북한 원화) 상승한 6천400원, 6천800원, 6



- 천500원을 각각 기록했음.
- 특히 미국달러 대비 북한 원화의 환율이 크게 상승해 평양, 신의주, 혜산이 각각 전달 대비 1천500원, 1천300원, 2천원 오른 7천800원, 8천원, 8천450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평양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난 9월(6천370원)보다 높은 환율임.
- 데일리NK는 대북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 애도기간을 맞아 북중 무역을 차단하자 상인들이 쌀을 내놓지 않고 달러상도 달러를 풀지 않아 쌀값·환율이 상승한 것 같다고 분석했음.

다. 군사

- **北김정은, 부친 1주기 계기로 군부 충성 결집(12/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김 위원장 1주기인 17일 재개관한 금수산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김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인민군 육·해·공군의 결의대회와 분열행진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김일성·김정일 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장병의 결의대회가 17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 이날 열린 충성맹세 의식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등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함.
 - 인민군을 대표해 연설한 최룡해는 "인민군대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 보위하는 오늘의 오중흡7연대(북한이 김일성 보위의 본보기로 선전하는 빨치산 부대), 하늘과 땅, 바다초소에서 당의 구상과 결심을 맨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이 되겠다"고 맹세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군 일선 군단장들이 나서서 김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결의연설들을 함.
- **북한, 미사일 발사 10월 이란에 설명(12/19, NHK)**
 - NHK 방송은 북한이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인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지난 10월 이란에 사전 설명했다고 10월 중순 평양을 방문했던 이란 이슬람연합당의 부대표인 하미드 레자 타라기 의원의 말을 인용해 19일 보도함.
 - 북한 방문단의 단장을 맡았던 타라기 의원 등은 10월 18일 평양에 도착해, 20일 북한 노동당의 김영일 국제비서와 회담함. 당시 김 국제비서는 '인공위성의 발사 준비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으며, 이란 대표단은 '인공위성의 발사 능력을 미국·유럽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환영함.
 - 이란 방문단은 당시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유럽 등의 경제 제재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에너지, 식량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NHK 방송은 "이란은 북한과의 미사일 기술 협력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 등은 양국이 핵·미사일 분야에서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함.

● **北김정은 "실용위성·운반로켓 더 많이 발사해야"(1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1일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을 계기로 실용위성과 운반로켓을 더 많이 발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평양 목란관에서 '광명성 3호'의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위해 개최한 연회에 참석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쏘아 올린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이번 위성발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만방에 시위한 장엄한 선언이며 선군조선의 종합적 국력을 과시한 역사적 장거"라고 평가하고 "동지들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전례 없이 높이는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 연회에는 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및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김기남·최태복·박도춘·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 당비서, 주규창 당 부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강석주·로두철 내각 부총리,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이 참석했음.

● **북한, 준비 끝내고도 로켓 발사 연기 발표(12/22,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쳐 놓고도 발사 시기를 늦출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2일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지는 미국 위성사진업체 '지오아이'에서 지난 8, 9, 10일 각각 촬영한 북한 동창리 발사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분석했음.
-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제임스 하디 에디터는 "북한으로서는 (발사 시점 정보를) 오도할 여러 이유가 있다"며 "지난 4월 발사 실패 때 있었던 국제적 당혹감을 피하자는 게 한 이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은 지난 10일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발사 예정일을 오는 29일까지로 늦춘다고 했지만 12일 로켓 발사를 강행했음.



- **北과학자 "실용위성 고도 500km에서 비행 중"(12/22, 조선중앙TV)**
 - 북한 과학자가 지난 12일 발사된 '광명성 3호 2호기'가 지구관측을 위한 실용위성이라며 고도 500km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김일성종합대 학부장인 박학철 교수는 21일 밤 조선중앙TV가 방송한 '광명성 3호 2호기' 좌담회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지구관측용 위성에서는 고도가 500km~1천km로 규정돼 있다"며 "현재 우리의 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는 500km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다"고 말했음.
 - 박 교수는 '광명성 3호 2호기'의 비행고도를 500km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고도가 500km보다 낮으면 대기와 마찰로 인해 위성의 수명이 줄어들고 고도를 너무 높게 할 경우 지구관측에 지장을 준다고 설명했음.

라. 사회·문화

- **"北 첫 전자게임 '평양 자동차경주' 개발"(12/21, 유희망(游俠網))**
 - 북한에서 처음으로 PC용 전자게임이 개발됐다고 중국 게임사이트 유희망(游俠網)이 21일 전함.
 - 이 매체는 '평양 자동차경주'라는 웹브라우저 기반의 이 게임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Koryo Tours)'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개발사는 '노소텍(Nosotek·북한명 제일정보기술합영회사)'이라고 소개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국가우표발행국, 김정숙(김정은 조모) 생일(12.24) 95돌 즈음 기념우표(소형전지 1종) 발행(12.18, 중방·중통)
- 김정일 軍 최고사령관 추대 21돌 및 김정숙 생일 95돌(12.24) 관련 '농근맹 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12.20 평안남도 숙천군문화회관에서 진행(12.20, 중통·중방)
- 駐北무관단, 12.20 김정일 軍 최고사령관 추대 21돌 즈음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 참관(12.20, 중통·평방)
- 김정숙 생일 95돌 경축 전국 풍경화 및 수공예품전람회, 12.19 국가산업미술중심전시장에서 개막(12.20, 중통)
- 駐北 여러 나라 대사관·국제기구대표부 여성들, 12.20 김정숙 생일 95돌 즈음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참관 및 대성산혁명열사능동상에 헌화(12.20, 중통·평방)



2. 대외관계

가. 일반

- **중류윈산 "북중관계 더 훌륭히 발전할 것"(12/17, 조선중앙통신)**
 -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劉云山) 정치국 상무위원이 17일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 "북중관계가 더 훌륭히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류 상무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를 맞은 이날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의 새 중앙영도집단은 전통적인 중조(북)친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노세대 혁명가들이 마련하고 키워준 전통적인 북중친선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함.
 - 또한 류 상무위원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주중 북한대사관을 방문했다"며 "시 총서기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국 정부의 깊은 위문과 따뜻한 인사를 김정은 동지에게 전해달라"고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에게 말함.

- **올해 국제사회 대북지원 전년比 30% 증가(12/18,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 자료를 인용해 18일 보도함.
 - OCHA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약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210억 원)로 지난해 8천920만 달러보다 30% 늘었는데, 이는 2010년(2천440만 달러)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임.
 - 대북 지원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스웨덴,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총 19개국으로 2010년 6개국, 2011년 17개국보다 늘었음.
 - 한편, OCHA 대변인실은 올해 유엔이 주력한 대북지원 부문은 식량공급과 영양개선, 농업지원 등이었다며 대북 지원액 중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에 배당된 기금이 50%를 넘는다고 밝힘.

- **美 NGO 대표 지난달 방북, 지원사업 현장 방문(12/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지원단체인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 · Global Resource Services)의 대표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지원 현장을 돌아봤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이 단체의 에디 올리버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로버트 스프링스(GRS) 회장이 지난달 66번째로 북한을 방문했다"며 "스프링스 회장은 북한이 GRS의 지원으로 황해북도에 조성한 콩 재배 농장과 염소 목장 등을 돌아봤다"고 전함.



- 올리버 대변인은 GRS가 황해북도 곡산군 해포리의 콩 재배 농장을 비롯해 황해남북도 5개 마을에 콩과 옥수수 재배 농장, 염소 목장, 식품가공 공장들을 설립했다며 북한 주민 15만 명에게 매일 식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강원도 인민병원을 포함해 5개 도의 7개 병원 의료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50만 달러에 달하는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기업들, 北광물자원 투자 가속화(12/20, 신화망(新華網))**
 -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광물자원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북한 광산을 선점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20일 보도함.
 -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북·중 접경인 중국 지린성의 훈춘용이(琿春永益)수출입무역회사는 지난 13일 훈춘시에서 북한 평양모란봉무역총회사와 금광 합영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 양측은 공동출자, 공동경영, 점진개발 방식으로 평양모란봉무역총회사가 소유한 북한 자강도 우산시의 금광을 채굴, 광석과 광분을 가공해 수출하기로 했으나, 투자 규모와 계약 기간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중기업들, 北에 대규모 해삼 양식장 추진(12/21, 신상보(新商報))**
 -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의 수산물 양식업체들이 북한 해역에 대규모 해삼 양식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다롄에서 발행되는 신상보(新商報)가 2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다롄 외파덴(瓦房店)시 해삼협회를 중심으로 한 20여개 수산물 양식업체는 북한의 동·서해안에 총 16km² 규모의 해삼 양식장과 종묘 배양장을 만드는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바다 임대 기간은 20년이고, 초기 투자 규모는 1억위안(1천750억원)가량임.
- **北, 한국계 미국인 억류 확인...북미 접촉 주목(종합)(12/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지난 11월3일 라선시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했던 미국 공민 배준호가 반공화국 적대범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해당기관에 억류됐다"고 보도했음.
 - 북한이 이달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국제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북미간 접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되며, 북한이 이날 공개한 배준호 씨는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인 것으로 추정됨.
 - 이달 중순 탈북자단체 등 대북 소식통들은 배 씨가 지난달 초 여행객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다고 전했고, 미국 정부는 이를 간접 시인했음.
 - 중앙통신은 "조사과정에서 배 씨의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가 증거물에



의해 밝혀졌으며, 본인도 자기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지만,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

● **北역류 배준호씨, 꽃제비 사진 찍다 체포된 듯(12/22, 미국의 소리(VOA) 방송)**

- 북한 당국에 40일 넘게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가 북한에 대한 외부의 도움을 호소하려고 '꽃제비'(먹을 것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북한 어린이)의 사진을 찍다가 체포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22일 보도함.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2일 도희운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를 인용해 배씨가 북한을 여행하다가 찍은 꽃제비 사진이 문제가 돼 체포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미국의 한국과 '탁상훈련'(12.6~7, 뉴멕시코州) 실시에 대해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선제공격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 및 '미국의 反北정책 철회' 주장(12.18, 중통)
- '광명성-3호' 2호기 궤도 진입 관련 '민족사적 쾌거, 역사적 사변, 최첨단과학기술수준의 과시'라고 自讚하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 광기를 부리고 있지만 자주적 권리행사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12.20, 중통·노동신문/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과시한 자랑찬 성과)
- 러시아·나이지리아·페루의 각계 인사들, 12.10~13 同國 北대표부들 방문(12.20, 중방)
 - 쿠바국가이사회 위원장(라울 카스트로 루쓰), 12.17 김정일 사망 1돌 관련 北대사관에 꽃바구니 전달(12.20, 중통)
- '광명성-3호' 2호기 궤도 진입 관련 '민족사적 쾌거, 역사적 사변, 최첨단과학기술수준의 과시'라고 自讚하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 광기를 부리고 있지만 자주적 권리행사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12.20, 중통·노동신문/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과시한 자랑찬 성과)

나. 6자회담(북핵)

● **日 공안조사청 "내년 북한 핵실험 가능성"(12/21, 일본 지지통신)**

- 일본의 법무성 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이 내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음.
- 21일 지지통신에 의하면 공안조사청은 이날 발표한 2013년 판 '내외정세의 회고와 전망'에서 최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향후 동향과 관련, "핵실험 등 추가적인 강경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했음.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재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북한의 잇단 군 간부 교체 인사와 관련, "군의 장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한미, 北고농축우라늄 의심시설 영상첩보로 파악(종합)(12/21,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과 관련된 의심 시설을 첩보위성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양국 정보 당국은 북한에 HEU 의심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동향을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2012 국방백서'에 기술된 북한의 HEU 프로그램과 관련, "한미가 공동으로 여러 가지 영상 첩보를 분석해 볼 때 그런(HEU) 시설들이, 그러한(농축) 동향들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음.
- HEU 생산과 관련해 의심되는 북한의 시설이 우리 정보자산 등에 포착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그는 북한의 HEU 프로그램과 관련한 시설을 영상첩보로 확인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관련 동향들을 우리가 식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프로그램) 대한 최종 평가를 유보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 현재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음.
-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 외에 또 다른 시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커 박사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여러 가지(시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으며, 그는 "여러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관련 동향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런 언급은 한미가 북한의 HEU 의심시설을 여러 개 포착하고 정밀 추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동족대결이 전쟁위험·민생파탄 몰아와"(12/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동족대결이 긴장 격화와 전쟁위험은 물론 민생파탄까지 몰아온다는 것은 이명박 집권 5년의 교훈"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이날 '동족대결 악담을 걷어치우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보수패당은 야당 세력을 우리(북한)와 억지로 연결시키는 한편 최고 존엄까지 모독하는 악선전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대결광신자의 악담 짙은 백두산 전세 위인들(김일성·김정일)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용납 못 할 모독행위"라고 비난함.



- 또한, 통신은 새누리당이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 유세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했고,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들이 금수산태양궁전에 대한 험담을 서슴지 않았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고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 것"이라고 위협함.
- **北매체, 南대선 결과 하루 만에 보도(종합)(1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가 남한의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결과 발표 하루만인 20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내외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9일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 한다"고 한 문장으로 전함.
 - 통신은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논평도 덧붙이지 않음.
- **조선신보, 朴당선인에 대북정책 입장 요구(종합)(12/21,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이날 '실패한 대결정책과의 결별을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1일 '공개질문장'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후보에게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며 "대결인가 대화인가, 전쟁인가 평화인가, 북남관계 파탄인가 개선인가, 제2의 이명박인가 아닌가(공개질문장)라는 물음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조선(북한)의 변함없는 관점과 입장"이라고 밝혔다.
 - 조선신보는 또 "공개질문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해온 새누리당 후보의 망동을 비난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말하는 북의 '선택 포기'는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또한 이명박 패당의 대결 정책과 대담하게 결별하고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는 없는가라고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 **군, 北장거리로켓 1단 잔해 3점 추가 수거(종합)(12/23,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의 1단 추진체 잔해물 3점이 추가로 우리 군에 수거됐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는 23일 북한 장거리 로켓의 1단 추진체 '산화제통'을 인양했던 지점 1~2km 안의 범위에서 지난 21일 두 차례에 걸쳐 로켓 잔해 3점을 추가로 인양했다고 밝혔다.
 - 인양된 잔해는 1단 추진체의 연료통과 연료통 하단부위, 엔진 연결링으로 분석됐음.



나. 경제·사회·문화

● 北매체, '애기봉 등탑 점등' 간접 비난(1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우리 군(軍) 당국이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에서 성탄절 등탑의 점등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남한 민간단체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우회적으로 비난했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의 30여개 단체가 괴뢰군부의 반공화국심리전 책동을 규탄해 2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만일 애기봉등탑에 불이 켜지는 경우 북과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매우 점예한 정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그들은 밝혔다"고 전했다.

● 최전방 애기봉 등탑 2년 만에 점등...지역주민 반발(종합)(12/23, 연합뉴스)

-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해발 165m) 등탑이 2년 만에 불을 밝혔으며, 북한의 위협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점등 저지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영등포교회와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 등 기독교 단체는 성탄절을 앞둔 2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애기봉에서 등탑 점등행사를 열었음.
- 점등식에는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신신목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신도가 참석했으며, 등탑 행사 전 대북전단 살포·애기봉 등탑 반대 김포대책위원회 회원 10여명은 트랙터 2대로 행사장 입구를 막아섰고 교회 신도들이 탄 버스를 저지했음.
- 대책위 회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애기봉 등탑 점등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점등 기간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성탄 트리가 아니라 전쟁 등탑"이라고 주장했다.



■ 기타 (대남)

- 北 민족화해협의회, 12.17 '집권 5년간 南北민간급협력교류사업을 차단하고 통일염원을 짓밟은 現 정부와 새누리당 비난' '공보' 발표(12.17,중통)
 - 민간협력교류 차단,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 파탄, 남북 통일행사 방해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청년분과위, 12.17 '이번 大選에서 한표를 꼭 행사해 보수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남한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12.17,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새누리당의 大選유세에서 對北언급(최고 존엄 모독 등)에 대해 "악랄한 대결선동, 특대형 도발행위"라고 비난 및 '동족대결책동 중단' 주장(12.18,중통/동족대결 악담을 걷어치우라)
 - '천추에 용납 못할 불망증 행위' 題下로도 "반민족·반인륜적 행위"라고 비난 및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 위협 언동(12.18,중통·노동신문·민주조선·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 北 고농축우라늄 시설 영상첩보로 확인(12/21,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을 첩보위성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양국 정보 당국은 북한의 HEU 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동향을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2012 국방백서'에 기술된 북한의 HEU 프로그램과 관련, "한미가 공동으로 여러 가지 영상 첩보를 분석해 볼 때 그런(HEU) 시설들이, 그러한(농축) 동향들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의 HEU 시설이 첩보위성 등에 포착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그는 북한의 HEU 프로그램과 관련한 시설을 영상첩보로 확인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관련 동향들을 우리가 식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프로그램) 대한 최종 평가를 유보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 현재 추적하고 있다"고 답함.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 외에 또다른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커 박사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여러 가지(시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음.
- 이는 한미가 북한의 HEU 시설을 여러 개 포착하고 정밀 추적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됨. 그는 "여러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관련 동향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연변 핵시설 내에 원심분리기 1천여 개를 갖춘 첨단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음을 공개했음. 이와 관련, '2012 국방백서'는 "2009년 외무성 대변인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언급과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의 공개 등을 고려해 볼 때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함. 2010년 발간된 국방백서는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표기했음.

● <北 '광명성 3호' 무용지물 될 가능성 대두>(12/21,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이용해 지구궤도에 올려놓은 '광명성 3호' 2호기가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북한은 '광명성 3호'와 지상관제소 사이에 교신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음. 21일 전문



가들에 따르면 위성 발사의 최종 성패는 위성이 지상관제소와 정상적으로 교신하는지 여부가 좌우함. 위성이 예정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도 안정적으로 궤도를 돌며 지상관제소와 교신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임. 마지막 로켓에서 분리된 위성은 궤도에 진입할 때 위성 자체가 회전하면서 각종 센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텀블링(tumbling) 현상' 등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9시49분 로켓을 발사한 지 1시간30분 만에 "위성이 예정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오후 늦게 김일성,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위성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함. '광명성 3호'의 성공적인 궤도 진입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우리 국방부 등도 로켓 발사 당일 확인한 부분임.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구를 도는 '광명성 3호'의 상태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지상관제소와의 교신이 이뤄지지 않아 위성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광명성 3호'가 북한당국에 의해 충분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광명성 3호'가 너무 낮고 불안정한 궤도를 돌아 대기와의 마찰로 타버리거나 지상으로 추락할 위성이 있다는 주장도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됨.
- 미국 민간단체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로켓 전문가인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와 조너선 맥도웰 미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연구원 등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함. 국내 전문가들도 '광명성 3호'의 상태와 관련해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음. 조광래 항우연 나로호발사추진단장은 "아직 지상과 위성 사이에 교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0kg 정도의 작은 위성은 충분한 자세제어장치를 갖추기 어려워 이제 와서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함.
- 조 단장은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일반적으로 위성을 발사한 지 24시간 내에 파악된다고 하며 북한당국은 이미 '광명성 3호'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함. 국방부는 "NORAD 자료를 보면 광명성 3호'는 95.4분 주기로 지구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 "지구궤도는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면서도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임.
-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현재 궤도에 안착한 '광명성 3호' 2호기의 '지면촬영결과'가 곧 나오게 된다"며 위성사진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아직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북한, 준비 끝내고도 로켓 발사 연기 발표"(12/22,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쳐 놓고도 발사시기를 늦출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음.



- 22일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미국 위성사진업체 '지오아이')에서 지난 8, 9, 10일 각각 촬영한 북한 동창리 발사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분석했음.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제임스 하디 에디터는 "북한으로서는 (발사 시점 정보를) 오도할 여러 이유가 있다"며 "지난 4월 발사 실패 때 있었던 국제적 당혹감을 피하지는 게 한 이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은 지난 10일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발사 예정일을 오는 29일까지로 늦춘다고 했지만 12일 로켓 발사를 강행했음.

● 北김정은 "실용위성·운반로켓 더 많이 발사해야"(12/22,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1일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을 계기로 실용위성과 운반로켓을 더 많이 발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평양 목란관에서 '광명성 3호'의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위해 개최한 연회에 참석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쏘아 올린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이번 위성발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만방에 시위한 장엄한 선언이며 선군조선의 종합적 국력을 과시한 역사적 장거"라고 평가하고 "동지들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전례 없이 높이는데 공헌을 했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 제일강국,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며 당이 위성과 운반로켓의 보유를 강성국가의 체모를 갖추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음.
- 연회에는 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참석했음.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김기남·최태복·박도춘·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 당비서, 주규창 당 부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강석주·로두철 내각 부총리,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이 참석했음.
- 연회에서는 '광명성 3호' 발사를 축하하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있었고 김 제1위원장은 연회가 끝나고 부인 리설주와 함께 숙소로 떠나는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배웅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NGO 대표 지난달 방북, 지원사업 현장 방문(12/19, 연합뉴스)

-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지원단체인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Global Resource Services)의 대표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지원 현장을 돌아봤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GRS는 미국 정부의 2008년 대북식량지원 때 분배와 감시 활동에 참여한 5개 민간단체 중 하나임. 이 단체의 에디 올리버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로버트 스프링스 (GRS) 회장이 지난달 66번째로 북한을 방문했다"며 "스프링스 회장은 북한이 GRS의 지원으로 황해북도에 조성한 콩 재배 농장과 염소 목장 등을 돌아봤다"고 전함.
- 올리버 대변인은 GRS가 황해북도 곡산군 해포리의 콩 재배 농장을 비롯해 황해남북도 5개 마을에 콩과 옥수수 재배 농장, 염소 목장, 식품가공 공장들을 설립했다며 북한 주민 15만 명에게 매일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 강원도 인민병원을 포함해 5개 도의 7개 병원 의료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50만 달러에 달하는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임. 스프링스 회장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인 1997년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GRS를 세우고 그동안 200여 건의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함.
- GRS는 1997년부터 올해까지 1천100여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서 지원과 교류 사업에 참여하도록 주선했으며 200여 명의 북한학자와 당국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함. 특히 올해는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방문 공연을 추진했지만 북미관계가 악화하면서 무산된 바 있음.

● "北역류 배준호씨, 꽃제비 사진 찍다 체포된 듯"(12/22, 연합뉴스)

- 북한 당국에 40일 넘게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가 북한에 대한 외부의 도움을 호소하려고 '꽃제비'(먹을 것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북한 어린이)의 사진을 찍다가 체포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2일 도희운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를 인용해 배씨가 북한을 여행하다가 찍은 꽃제비 사진이 문제가 돼 체포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전함. 도 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북 관광업체를 운영하는 배씨가 평양의 고아원과 나진·선봉 지역의 빵공장을 수년간 지원해왔으며 "(배씨가) 사업상 버는 돈 외에 (외부)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사진(꽃제비 사진)이 나와서 (북한에) 왔다 갔다 했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함. 도 대표는 또 북한 당국이 그동안 배씨의 '꽃제비' 사진을 묵인해오다가 이번에 갑자기 문제 삼아 억류한 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의문을 제기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지난 11월3일 라선시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했던 미국 공민 배준호가 반공화국 적대범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해당기관에 억류됐다"고 보도했지만,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



로 밝히지 않았음.

● "美하원, '北로켓 규탄' 결의안 본회의 상정"(12/23,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지난 20일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짐.
- 23일(현지시간) 미 의회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된 '북한 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실과 공화당 원내총무실이 직접 챙겨서 외교위 심의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 20일 밤 하원에 상정됐음. 당초에는 이날 밤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산적한 현안 때문에 일단 연기된 상황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함. 이 소식통은 "결의안 내용에 문제가 있어 처리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원내 일정이 워낙 촉박해 생긴 결과"라며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 결의안이 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함. 현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공화)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또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협조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아울러 결의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하면서 북한과 이란이라는 두 '불량국가'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사일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협력을 유지해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 베이너 하원의장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 직후와 실제 발사 직후 등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국무부와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소식통은 "미국 의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회가 향후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다. 중·북 관계

● 외교부, 대화와 협상 통해 조선 위성 문제 해결해야(12/20, 인민일보)

- 조선이 12일 위성을 발사한 후,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며 중국의 지지를 얻길 희망함.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9일 이와 관련해 "대화과 협상을 통해 각국 상황을 균형적으로 해결하지는 것이 중국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힘.
-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조선 위성 발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관련 당사국들은 사태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함.
- 화춘잉 대변인은 또한 "조선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각국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다"라고 밝히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힘쓰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각국의 상황을 균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중국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중국은 각국이 함께 노력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길 희망한다"라고 전함.

● **중기업들, 北에 대규모 해삼 양식장 추진(12/21, 연합뉴스)**

-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의 수산물 양식업체들이 북한 해역에 대규모 해삼 양식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다롄에서 발행되는 신상보(新商報)가 2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다롄 와팡톈(瓦房店)시 해삼협회를 중심으로 한 20여개 수산물 양식업체는 북한의 동·서해안에 총 16km² 규모의 해삼 양식장과 종묘 배양장을 만드는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하고 있음. 바다 임대 기간은 20년이고, 초기 투자 규모는 1억 위안(1천750억 원)가량으로 전해짐. 와팡톈시 해삼협회 왕밍리(王明利) 회장은 "이미 북한 측에 기초적인 투자 의향을 전달했으며 현재 협의 중인 세부 투자 조건들이 합의되면 내년 초부터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해삼 양식 프로젝트는 북한의 담당자가 다롄의 관련 업체를 3차례 방문하는 등 북한 측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 회장은 "예전에도 단둥(丹東)과 베이징(北京) 등지의 중국 투자자들이 북한 해삼 양식에 투자했지만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실패했다"면서 "2009년 단둥의 한 업체가 다롄의 관련 기술자를 북한에 데려가 해삼 종묘 배양에 성공한 이후 북한이 다롄의 관련 업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함. 다롄의 양식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2월과 10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해삼 양식장 후보지를 시찰했으며 다롄해양대학의 전문가들이 해당 해역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해삼 양식과 종묘 배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해삼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면서 비싸게 팔리고 있음. 중국의 연간 해삼 소비량은 120만t 정도이지만 자체 생산량은 25만t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북한과 가까운 랴오닝성 다롄 근해는 한때 세계 최대 해삼 양식장으로 불렸지만 갈수록 수질이 나빠져 양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왕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북한에서 양식한 해삼을 중국에 판매할 계획이며 양식 원가 절감으로 해삼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음.
- 신문은 중국 측 투자자들이 대북 투자의 위험성을 고려해 북한 측에 통관, 통행 보장과 더 많은 우대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조건의 합의 여부가 이번 프로젝트의 성사를 가름할 것으로 내다봤음. 현지 해삼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북한에 가서 해삼 양식에 투자하는 데는 여전히 잠재적 위험성과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다롄의 유명 해삼기업은 아직 대북 투자에 나설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라. 기 타

● <北김정은 옆에 이틀째 선 미스터리 '양복男'은 누구>(12/17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를 맞아 열린 공개행사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사가 이틀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바로 옆에 등장, 이 인사의 정체에 관심을 집중되고 있음.
- 북한에서는 영도자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간부들의 권력서열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임. 이 인사는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8분까지 약 70분간 실황 중계한 김정일 위원장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처음 모습을 나타냄. 이 자리에는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경희 노동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 김정은 체제를 이끄는 권력 실세들이 총출동했음.
- 특히 한 번도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는 이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은 김 제1위원장의 바로 왼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 자리는 그동안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차지했음. 60대로 보이는 이 중년남성은 17일 오전 9시 중앙TV가 생중계한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에도 김 제1위원장의 바로 왼쪽에 다시 등장했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최근 로켓 발사 성공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부각하며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했던 만큼 이 남자가 로켓 발사 성공에 기여한 중심인물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위성발사와 관련한 과학자 대표일 것 같다"고 추정했고, 북한 사정에 밝은 한 대북소식통 역시 "이미지가 당 간부 같지 않다. 로켓 발사와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일각에서는 김 제1위원장을 경호하는 호위총국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옴. 최근 김 제1위원장에 대한 경호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는 여러 정황이 있기 때문임.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등장한 적이 없는 생소한 인물이다. 우리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 <北김정은, 부친 1주기 계기로 군부 충성 결집>(12/19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를 맞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는 행사를 개최해 관심이 쏠리고 있음. 북한은 김 위원장 1주기인 17일 재개관한 금수산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김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인민군 육·해·공군의 결의대회와 분열 행진을 진행함.
-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김정일 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의 결의대회가 17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이날 열린 충성맹세 의식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등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함. 인민군을 대표해 연설한 최룡해는 "인민군대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 보위하는 오늘의 오중흡7연대(북한이 김일성 보위의 본보기로 선전하는 빨치산 부대), 하늘과 땅, 바다초소에서 당의 구상과 결심을 맨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이 되겠다"고 맹세함.

-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군 일선 군단장들이 나서서 김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결의연설들을 했음. 장정남 1군단장은 "최고사령관(김정은)의 최후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김형룡 2군단장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인공위성 발사를 걸고 들면서 조금이라도 조국의 존엄을 건드린다면 적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음. 리영길 5군단장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적 침략집단을 일격에 초토화하겠다"고 단언했으며 최경성 11군단장은 "최고사령부가 가리키는 붉은 화살표를 따라 달려 나가 침략자들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맹세함.
- 강원도 최전방에 주둔하는 1군단·5군단장과 특수전 부대인 11군단(일명 '폭풍군단', 옛 경보교도지도국) 군단장까지 나서서 충성맹세를 하는 것은 최근 군 고위인사의 잇따른 '물갈이'와 계급 강등 등으로 군부가 위축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됨.
- 북한군은 올해 2월16일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후 첫 생일을 맞으며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약식 열병식을 진행하고 김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당시 열병식에서는 육·해·공군 및 노동적위군의 사열에 이어 방사포와 미사일, 장갑차 등 군사장비와 무기도 등장했음.
- 하지만 당시 군 수뇌부와 함께 김 제1위원장 앞에서 군부를 대표해 충성맹세를 했던 리영호 전 총참모장은 그로부터 5개월 후 숙청됐음.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 제1위원장의 군부 장악을 위해 인사교체와 계급 강등을 거듭하는 과정에 불거진 군부의 불만을 의식해 김 제1위원장에 대한 군인들의 충성맹세 의식을 진행했을 것으로 분석함.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룡해를 내세워 당에 의한 군 장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반발은 없었지만, 군부 내에서 소극적인 불평·불만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이런 불만을 잠재우고 군부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충성맹세 의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李대통령, 오바마에 '총기난사 사건' 위로 서한(12/17,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위로서한을 발송함.

-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한국 국민을 대표해 유족들과 미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특히 "미래의 희망인 무고한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희생돼 안타깝다"면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 대통령은 이어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큰 슬픔을 조속히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으로부터의 위로와 성원을 보낸다"고 거듭 애도의 뜻을 전함.

● 차당선인-오바마 전화통화..이른 시일내 회동키로(12/2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된 동북아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공감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회동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박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한반도 주변 4강(미·중·러·일) 정상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박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제가 당선되자 오바마 대통령께서 축하한다는 성명도 내주고 이렇게 직접 당선축하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함. 그러면서 "저보다 먼저 선거를 치르고 성공하신 오바마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함.
- 박 당선인은 또 지난 14일 발생한 미국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참사에 대해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사상자의 친지와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사의를 표했다고 배석한 조운선 대변인이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함.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임기 5년 중 대부분 기간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은 한미상호방위조약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미 관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무역과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하고 있어 기쁘다"면서 "한국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함. 박 당선인과 오바마 대통령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양자문제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환경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함.
- 11분간 이뤄진 이날 통화에는 조운선 대변인과 윤병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추진단 단장이 배석했음.



나. 한·중 관계

● 中, '韓박근혜 동북아협력 강화' 발언 관련 입장 밝혀(12/21, 인민일보)

- 2012년 12월 20일,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연례브리핑을 열었음.
- 중국은 박근혜 한국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 후 밝힌 동북아 협력 강화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음. 화 대변인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한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에게 축전을 전달했다. 중한 양국은 수교 20년 간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유지해 왔으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양국의 전략적 정치적 상호신뢰를 한층 증진하고 양국의 다양한 분야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중한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답변했음.
- 아울러 "한반도의 이웃국가인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 매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이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추진하는 것이 각국의 공동이익이자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남북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과 화해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지원해 왔다."고 설명함. 또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이 지역 나아가 세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공동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中, 박근혜 대통령 당선 축하 "양국관계 중요시 해"(12/21, 인민일보)

- 장신선(張鑫森) 주한 중국대사는 20일 한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를 만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축전을 전달하였음. 장신선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국가로 중국은 양국 관계 발전을 매우 중요시 하고, 박 당선자께서는 중국인의 오랜 친구로 다년 간 중한 우호 협력을 위해 애써왔기 때문에 중한 양국 정상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함.
- 박근혜 당선자는 중국 측의 축하인사에 감사하며,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에 대한 안부를 장 대사에게 부탁하였음. 박근혜 당선자는 또한 중국이 거둔 엄청난 발전성과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한중 양국은 줄곧 고위층 간 교류를 유지해 다양한 분야의 우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한국은 중국 측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한중 관계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 <'고노담화 수정은 레드라인 넘는것'(12/17, 연합뉴스)>

- 일본 총선에서 우익 정치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함에 따라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려워질 것으로 대부분의



국내 전문가들은 전망했음. 자민당은 총선 공약으로 집권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음. 게다가 아베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면서 이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수정마저 주장해 왔음.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우경화 공약을 너무 많이 내놓았다"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함. 진 센터장은 "자민당만으로도 과반(241석)을 훌쩍 넘어 294석을 확보했고 극우성향의 일본 유신회와 힘을 합칠 경우 의석 전체의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공약 실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다"고 말함.
- 이월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도 "자민당의 영토나 역사에 대한 입장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악화되거나 험악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이 교수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島根)현의 지역 행사인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국가 행사로 승격해 치르기로 한 내년 2월 22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그는 "이 행사를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치르거나 아베 스스로 참가할 경우 한일 새 정부간에 출발부터 매우 나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면서 "이 행사의 수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가 당분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자민당이 집권당이 되면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 미일 관계 등 대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경화 공약의 이행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음. 이 교수는 "위안부 문제의 경우 고노 담화를 철회하거나 근본 입장을 바꾼다면 한일관계의 금지선(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면서 "그 부분은 일본도 신중할 것으로 예상돼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도 "일본에서 우익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당연히 나빠진다고 보기보다는 독도, 과거사 등의 변수에 대해 일본이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펴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 전문가들은 자민당의 지지율 자체는 20%대 후반에 불과해 외교안보 정책이나 역사문제에 대한 입장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정부가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한일 관계를 지나치게 악화시키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함.

● 일한 관계수복을 위해 "최고 수준"의 특사 파견(12/21, 산케이신문)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이후, 최악이 된 일한 관계의 수복을 위해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가 박근혜 차기대통령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한 정부 관계자는 "차기 취임 양국 관계수복을 위한 고난도의 외교전"이라고 표현함. "한국의 신정권과 일본의 신내각이 잘 협력해, 일한 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박씨는 20



일 오후, 주한일본대사와의 회담에서 이렇게 발언함.

- 선거 도중, 좌파는 박씨를 '친일파', '박정희의 딸'이라고 중상함. '친일파'가 '매국노'라고 한국내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으며, 일본과의 접근은 정권의 구심력을 잃을 수도 있는 모험으로 보임. 한편의 자민당 내에서도 "한국과의 접근은, 조심하지 않으면 화상을 입는다"라는 중견 의원들의 신중론이 있는 것도 사실임. 게다가, 자민당은 "타케시마의 날"의 행사를 정부 주최 행사로의 격상을 공약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국의 차기 지도자들이 관계를 개선하여 '미래 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목표로 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공통의 이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박씨는 20일, 미국, 중국, 러시아의 주한대사와도 회담을 진행함. 어느 회담에서도, 북한에 의한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의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교환에 많은 시간이 할애해졌다며 새누리당 관계자가 말을 전함. 젊은 시절 청와대에서 북한 안보의 중요성을 눈앞에서 목도한 후, 북한의 모략에 의해서 어머니가 살해된 박씨에게는 '북한의 위협'은 절실한 문제임.
- 한편, 아베의 외가의 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은 박씨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친교가 두꺼웠음. 관계자에 의하면 아베는 특사 파견을 결정하기 전, 주변에 "일한간에는 어려운 과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나도 조부와 같이, 한국의 지도자와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깊게 해 발전적인 외교 관계를 쌓아 올리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측 관계자는 "양국의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사이의 교류나 지도 정당간의 신뢰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라. 미·중 관계

- **美, 고강도 中압박.. "대북제재 안하면 군사대비 강화"(12/18, 연합뉴스)**
 -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을 확실히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고강도로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짐. 특히 미국은 중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인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짐.
 - 유엔 안보리 문제에 정통한 서울의 한 소식통은 18일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논의가 1월까지 연장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결의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밝힘. 이 소식통은 "미국은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 등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북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인 준비태세를 취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중국에 전하고 있다"고 말함. 이는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군사력 증강 가능성을 경고함으로써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발하려는 전략으로 보임.



-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추진 문제를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체제와의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접근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함. 이 같은 미국의 고강도 중국 압박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미국과 중국이 '의장성명' 선에서 적절히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관측과는 상반된 것임. 미국은 형식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와 관련, 현행 대북결의 1874호 상에 '촉구(call upon)'로 돼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조항 등을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decide)'하는 규정으로 바꾸는 방법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차기 국무장관 후보직을 고사한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결의안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함. 중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외교부 대변인)고 밝힌 대외적인 기본 입장을 반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한중 고위급 접촉에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한 소식통은 "중국이 기본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강한 의지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를 수용하면서 추가적인 대북 압박은 피한다든지 하는 등과 같은 여러 계산을 할 것"이라고 말함.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中, 美관세법 수정안 제소...WTO 분쟁안 전문가팀 조직(12/19, 인민일보)

- 미국 관세법 수정법안에 대한 중국 측 제소에 WTO 분쟁안(DS449) 전문가 조직이 17일 정식으로 꾸려짐.
- 상무부의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담화 발표를 통해 지난 2012년 9월 17일, 중국이 미국 관세법 수정 법안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 기제 측에 답변 요구를 제기, WTO 분쟁 해결 기제가 정식으로 가동되었다고 밝힘. 이번 분쟁에는 총 24종류 제품이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 금액만 72억 2700만 달러에 달함. 이후 11월 5일, 중-미 양측이 제네바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음. 중국 측은 미국이 국내법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중국에 대해 30여 건의 반 보조금 조사 명령을 내렸고, 그 후 GPX 법안 소급을 통해 이러한 조사의 합법성을 인정하였음. 이러한 방식은 현지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해쳤음. 이에 중국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수정에 나서 다시 WTO 틀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은 결렬로 끝나고 말았음.
- 선단양 대변인은 중국은 물론 WTO 규율을 존중하여 각종 형식의 무역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WTO 회원국의 권리를 행사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고 있다고 강조함. 협상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WTO 분쟁 해결 기제를 가동, 중국이 WTO에 전문기법 설립 요구를 제청한 만큼 이러한 WTO 분쟁 해결 기제에서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마. 미·러 관계

● <러·미, 인권법 둘러싼 갈등 악화일로>(12/23, 연합뉴스)

- 미국의 대(對) 러시아 인권법 채택을 둘러싼 양국의 외교 마찰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 관련자들에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한 데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의회가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그러자 미국은 다시 이 법안을 승인한 러시아 하원 의원들을 마그니츠키법 적용 대상 목록에 포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 하원들을 마그니츠키법 대상에 포함하면 그에 대한 맞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나섰음.
- 23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 내용을 담은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에 찬성한 러시아 하원 의원들을 대(對)러 인권법인 '마그니츠키법' 적용 목록에 포함시키자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음. 21일 미 백악관 사이트에 오른 청원서에는 현재 2만6천750명이 서명했음. 미 행정부에 청원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최저 서명자 수인 2만5천명을 훌쩍 넘긴 것임.
- 이런 미국인의 청원에 대해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바체슬라프 니코노프는 의회 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일로 양국 간 심각한 외교전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음. 니코노프 부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사태가 악화하면 러-미 양국은 서로 제재 대상 목록을 한 없이 늘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은 아주 심각한 외교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음. 그는 "표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의원을 징계한 경우는 인류 역사에 없었다"며 "이것(미국의 청원 운동)은 전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음.
- 러시아 하원은 지난 21일 미국의 마그니츠키법 채택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미(對美) 인권 법안을 통과시킴. 더운 날 자동차 안에 가둬두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러시아 입양아의 이름을 따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러시아인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미국인들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러시아 내에 보유한 자산을 동결하고 그들에 의해 운영돼온 단체들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했음. 마그니츠키법은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 관리는 물론 그 가족과 친척에게도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영국 투자펀드 허미티지캐피털의 모스크바 사무소에서 일한 러시아인 변호사 마그니츠키는 2008년부터 자국 검찰과 경찰, 판사, 세관원 등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사건을 파헤치다 탈세 방조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던 중 2009년 11월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숨졌음.

바. 중·일 관계

● <아베호 출범...中·日 정면충돌 차단나>(12/17, 연합뉴스)

- 우파 정객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일본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중일 관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음. 가뜰이나 국교 정상화 40주년 이래 최악의 상황에 놓인 중일 관계가 양국 간 무력 충돌을 포함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중일 관계의 최대 뇌관은 역시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임. 아베 총재는 이미 강경 대응을 예고했음. 무인도로 방치된 센카쿠 열도에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어업 환경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등대를 설치하는 등 실효 지배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음. 아울러 해상보안청을 강화하고 자위대의 인원·장비·예산을 증강하겠다고 공언함.
- 이 밖에도 자민당은 국경을 형성하는 섬을 수호·진흥하고 영해 경비를 강화한다는 핑계로 '특정국경·섬 보전·진흥법', '무인국경·섬 관리법', '영해 경비법' 등을 제정하는 등의 법제 보완도 서두르고 있음. 하나같이 중국을 크게 자극할 내용임.
- 문제는 이런 아베 총재의 약속이 공언(空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임. 아베 총재는 장기 경기 침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인한 불안한 사회 분위기, 중국의 부상에 대한 열등감과 불안감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민의 보수 우경화 정서에 편승해 권력을 탈환함. 따라서 역대 어느 일본 정권보다 더욱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펴으로써 '정권의 정체성'을 선명히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임. '일본의 역습'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9월 국유화 단행으로 장기 대치 국면에 빠진 센카쿠 갈등은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한층 커지게 됨.
- 중국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의 국유화 '도발'에 맞서 독자적인 센카쿠 영해 기선을 선포하고 해양감시선, 어정선, 항공기 등을 센카쿠 영해와 영공에 수시로 진입시키는 방식으로 일본에 '대가를 치르게 함. 노다 정권은 인민해방군까지 개입해 중일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중국 관공선이 센카쿠 영해를 제 집 안마당처럼 헤집고 다니는 것을 사실상 수수방관해왔음. 아베 총재는 이 같은 '무력한 대처'



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퇴역 자위대 군함을 해상보안청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의 센카쿠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구상을 총선 기간 밝힌 바 있음. 따라서 아베 총재가 96대 총리에 정식 취임하면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는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강력한 방식으로 중국의 센카쿠 접근 차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필두로 한 5세대 지도부가 막 들어선 중국 또한 한치도 물러날 기색이 없음. 중국은 이달 8천급 구축함 항저우(杭州)함 등 주력 해군 함정이 참여한 가운데 서태평양 해상에서 센카쿠 열도 충돌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시행함. 일본 순시선이 중국 관공선과 충돌하는 등 적극적 제지에 나설 경우 곧바로 정규 전력을 투입하겠다는 경고 신호를 일본에 보낸 것임. 이 밖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수개월 동안 해병대의 섬 탈환 훈련, 공군의 원거리 폭격 훈련 등 각종 훈련을 하면서 '핵심 국가 이익'인 센카쿠 열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져왔음.
 -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아베 정권은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센카쿠 열도 지배권을 수호하겠다는 방침임. 아베 총재는 총선 승리 직후 "일미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 강한 외교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 따라서 중일 간 센카쿠 분쟁은 아시아 복귀 전략을 구체화하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간의 대결장으로써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임.
- **中, 일본 군용기 다오위다오 침범에 대한 입장 밝혀(12/17, 인민일보)**
 -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4일 중국 외교부 측은 일본 군용기가 중국 다오위다오(釣魚島) 공해를 침범한 일과 관련해 일본 측에 이미 엄정한 교섭 및 항의를 제기함.
 - 12월 13일, 중국 해양감시기가 다오위다오 공해에서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이 군용기를 파견하였음.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홍대변인은 "중국 외교부 측은 일본 측이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중요시 하여, 중국 영유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라고 답함.
 - **中, 일본의 발전 방향 주시...평화의 길 걸어가길 (12/18, 인민일보)**
 -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7일 열린 연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의 대(對)중 정책 방향을 중요시 하며, 일본 측이 현 양국 간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원만히 처리하여, 중일 간 4건의 정치적 문건이 정한 원칙과 정신에 따라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 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16일,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승리를 거두어 민주당에 이어 집권당이 되었음.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데 대해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음.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 총선 결과에 주목했다. 중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국가로 2006년 양국은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양국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 유지에 양국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 발전에 필요한 일이다. 중국은 일본의 대중 정책 방향을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일본 측이 현 양국 간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원만히 처리하여, 중일 간 4건의 정치적 문건이 정한 원칙과 정신에 따라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대답함. "아울러, 일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지속적으로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임.

- 중국은 곧 집권당이 될 자민당의 아베 신조 대표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지적한 바, 중일 양국의 평화 및 안정적인 협력관계는 양국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 발전에 필요한 일이다. 일본 측이 현 양국 간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원만히 처리하여, 중일 간 4건의 정치적 문건이 정한 원칙과 정신에 따라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답함.
- 또한 중국에 있어 일본 자민당 집권이 이전 민주당 정권과 다른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본 내정에 관계된 일로 어떠한 평가를 내리지 않겠다고 밝힘. 둘째
- 아베 신조 대표는 총선 후 양국간의 핵심적 이슈인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언급한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언제나 그랬듯 "댜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로 일본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양국관계 개선에 노력하길 바란다."며 마무리 지었음.

● 니와 전 대사 "센카쿠, 분쟁으로 인정 "국유화를 의문시(12/21, 산케이신문)

- 니와 우이치로 전 주중국 대사는 20일, 도쿄·우치사이와이초의 일본 기자 클럽에서 회견해, 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외교상의 분쟁은 있다. 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 불가능하다"라고 말해 "영유권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의 변경을 요구함.
- 니와씨는 "이제 와서 영토 문제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 편이 흑이라고 말하고, 이쪽이 흰색이라고 하면 분쟁이다. 분쟁을 넘어 양국의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은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외교다"로 덧붙여 양국 정부가 협의하도록 요구함. 분쟁해소의 이유로서 "센카쿠는 임계점을 넘게 해선 안 된다. 임계점은 군대가 개입하게 되는것이다"라고 강조함.
- 한편, "대화로 영토, 주권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 일본은 한 치라도 양보해서는 안된다"라고도 말함. 일본이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면 중국의 도발이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 이외, 길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침.



- **中 항공기 또 센카쿠 접근...日 전투기 출격(12/23, 연합뉴스)**
 -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 항공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상공 부근에 접근해 일본 전투기가 발진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함.
 - 23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 소형 프로펠러기 한 대가 전날 오전 센카쿠 북방 약 120km까지 접근해 대응 차원에서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긴급 발진함. 중일 양국 간 센카쿠 상공 대치는 지난 1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임. 지난 13일 중국 항공기의 센카쿠 접근을 파악하지 못한 항공자위대가 이번에는 레이더로 탐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 75주년인 지난 13일 센카쿠 상공에 자국 항공기를 진입시킨 데 이어 미국 상원이 21일(현지시간) 센카쿠의 행정관할권이 일본에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두 번째 진입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임.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이 일본 편들기에 나선 미국에 항의하고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주권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항공기를 다시 센카쿠 상공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음.
 -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도 일본 방위성 발표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지난 13일과 마찬가지로 해양감시 항공기인 B-3837기가 댜오위다오 북방 100km까지 비행했고 일본 자위대 소속의 전투기가 긴급 대응해 왔다"고 전함. 통신은 "일본이 중국의 동해 상 활동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을 동원해 동해 감시 수위를 높였다"고 덧붙임. 통신은 또 "지난 21일 중국 해감 50, 83, 111호 편대가 댜오위다오 영해 내에서 주권 수호를 위한 순항활동을 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들과 만나 설전을 벌였다"고 소개함. 통신은 "중국 해감 편대가 일본 측에 '중국의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즉각 퇴각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임.

사. 기 타

- **대만 "日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할 것"(12/17, 연합뉴스)**
 - 대만 당국이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것과 관련, 지속적인 양국 유대관계 강화 의지를 천명함.
 - 대만 외교부는 17일 논평에서 "대만과 일본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자민당 집권 이후에도 더 공고한 기초 위에 양국관계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당국은 특히 총선 승리로 총리 취임이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대만을 잘 아는 정치인이라는 점에 기대감을 표시함. 아베는 2010년 타이베이, 도쿄 간 직항기 운항이 재개될 당시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한 바 있음.
 - 대만 외교가에선 다만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내년 초로 예정된 양국 간 어업회담 등이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함. 대만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도 평화적인 댜오위다오 문제 해결이라는 기



본 인식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뒤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